

리더십, 투명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

글_ 전홍윤(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팀장)

지난 5월 초 중남미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서는 전 세계 46개 공동모금회 회원국들이 참가한 가운데 2004년 국제공동모금회(United Way International) 세계총회가 열렸다. 2년마다 열리는 세계총회는 각국 공동모금회 회원국들의 활동을 통해 서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나눔의 유엔총회' 라고 할 수 있다.

올 해 세계총회의 주제는 '탁월한 리더십', '전략적 파트너십'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건설'이었으며 한국공동모금회는 지난 5년간 삼성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최우수 전략적 파트너십' 상을 수상했다.

사회공헌을 통한 기업과 국가의 이미지 창출

특히 이번 세계총회는 이제 나눔의 문화가 단순히 기부자의 선의에만 기대하는 '천수답' 적인 것이 아니라 땀을 쌓아 적정한 시기에 저장된 물을 내려 보내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계획된 '관개사업'이라는 점이 특히 강조된 대회였다.

삼성과 공동모금회와의 관계도 단순히 기부자와 지원기관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두 파트너 기관들의 협의에 의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삼성은 매년 100억원의 성금을 5년 연속 기탁하고 삼성계열사를 통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사회복지사업이 단순히 금전적인 기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 보였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단순히 자국내의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범위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GM이나 P&G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이 한 기업의 이미지 제

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마케팅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지역단위 회의를 통해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사회공헌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기업과 상품 그리고 국가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충고를 하기도 했다.

벤처기업 '1사1인 채용운동'은 지속적인 사회공헌

세계총회를 주최한 푸에르토리코모금회는 신문협회, 방송협회와 함께 실직자들에게 신문배달 및 판매와 관련한 일자리를 주고 있다. 이에 연간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통해 자활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미국 통신장비 벤처기업인 유리시스템스의 창업자인 메릴랜드공대 김종훈 교수의 사회공헌 현지화 프로그램을 눈여겨볼만하다. 김교수는 스탠퍼드대에 한국학 석좌교수 기금 200만달러를 기부했고, 이에 대학에서도 200만달러의 매칭 펀드를 배정해 총 400만달러의 한국학 석좌교수직을 개설하게 된 것이다. 이는 미국대학의 한국학 연구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 더욱 뜻깊다.

안으로 눈을 돌려보면 최근 벤처기업들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사1인 채용운동'을 펼치는 등 이제 우리 기업의 사회공헌 방식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은 잉여가치의 나눔을 넘어서 공통의 가치를 창출하고 나눔으로써 기업과 사회와 함께 공존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벤처기업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창의, 도전 정신과 함께 주변을 돌아보고 가치를 공유하는 아름다운 벤처 정신이 더욱 깊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해 본다.